



Weekly Keyword

“진전 VS 역풍”

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 주 다수의 신제품을 출시. 기술 투자 여파로 실적은 부진하지만, 로봇 역량 지속 확보 그림. 한편, 두산로보틱스는 그룹 개편 속 역풍 맞이 중

유진투자증권

로봇/기계/운송 양승윤
02) 368-6139_syyang0901@eugenef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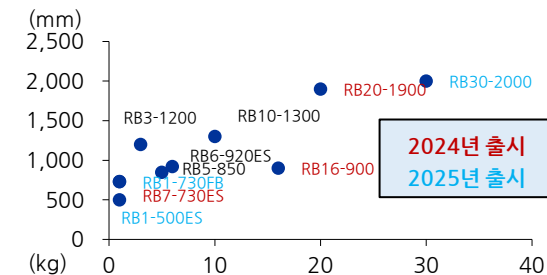


What's new? - 로봇 산업 주요 이슈 & 스터디 시리즈(53)

[진전 vs 역풍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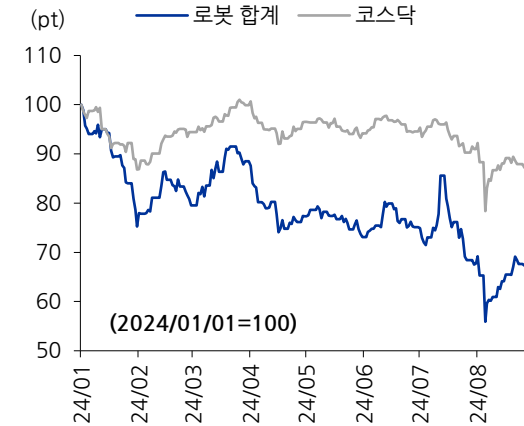
-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지난주 신제품 발표회에서 신규 제품을 다수 공개(RB20, RBM-D400, RBM-D1000). 내년에는 가반하중 1kg의 경량 협동로봇과 30kg 고가반하중 라인업이 추가될 예정.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올해 연말~내년 초 차세대 AI 휴머노이드 출시 계획도 언급 중. 코어 기술 바탕으로 로봇 역량 지속 고도화 달성 중. 다만, 기술 투자 집중 속 최근 실적은 다소 부진한 모습. 동사는 국내외 마케팅 능력 강화해 내년 연간 협동로봇 1,500대 판매 목표를 제시 중
-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주 두산밥캣과의 주식교환 철회를 발표. 두산 그룹 사업 재편 속 역풍 맞이 중. 기존 계획대로 두산에너지리미티드에서 분할된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가 되는 구도는 유지되나, 내년 이후 예상되었던 두산로보틱스-두산밥캣 합병은 무산. 두산밥캣으로부터 배당 수취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, 기존 시너지였던 M&A 등에는 다소 제약 발생할듯. 플랜 B 향방 관심 필요

Key Chart: 레인보우로보틱스 협동로봇 라인업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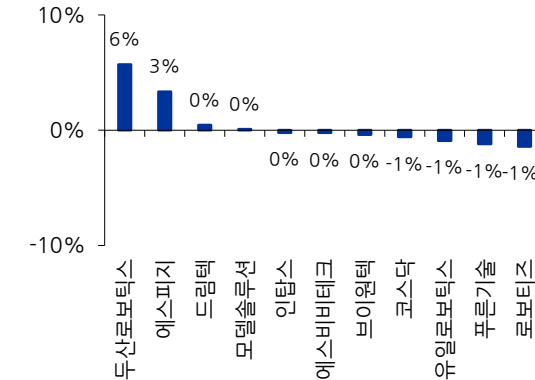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언론보도

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



국내 로봇 기업 1W 시총 변화 Top 10



자료: Quantiverse

로봇 주요 뉴스(08/26~09/01)

[산업용 로봇]

- 레인보우로보틱스, 협동로봇 및 물류로봇 신제품 공개
- 로보티즈 내년초 자체 개발 협동로봇 출시 계획

[서비스 로봇]

- 뉴빌리티, 일본 ZMP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확대 협력

[기타(정책/부품/SW)]

- 두산, 금융당국 압박에 로보틱스와 밥캣 합병 중단
- 한국 휴머노이드 스타트업, 홀리데이로보틱스 175억 투자
- 뉴빌리티, 국내 로봇 기업 중 유일하게 포브스 100 선정
- 택배 로봇 기업 와트가 시리즈 A 투자 유치 시동
- 태성시스템, 로봇 자회사 합병하고 상장 준비 추진

[Global]

- 1X Technologies, 휴머노이드 NEO 베타 프로토타입 공개
- 스카이라인로보틱스, 뉴욕 빌딩에 창문 청소 로봇 배치
- 아마존 창업자가 4족보행로봇 기업 스위스마일에 투자
- MIT-임프로버블 시랩, 두 손가락 로봇 그리퍼 개발
- 중국 유비텍 상반기 매출액 실적 전년비 90% 성장
- 중국 샤오핑, 10월에 2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예정
- 중국 갈봇, 26년부터 휴머노이드 양산 계획
- 중국 로보에라, 가반하중 160kg 휴머노이드 스타1 발표
- IFR, 중국 산업용 로봇 가동 대수 세계 최고 기록 발표
- 일본 코노이케, 건설 현장 로봇 도입 테스트필드 개소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.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

Weekly Keyword

"2025년 국방비 예산안 공개, 누가 수혜인가?"

내년도 국방비 예산은 전년대비 3.6% 증가.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29%로 전년과 유사. 방위력 개선비 중 유도무기 및 항공기 예산 증가하며 관련 기업 수혜 기대감 높아짐

유진투자증권

로봇/기계/운송 양승윤
02) 368-6139_syyang0901@eugenef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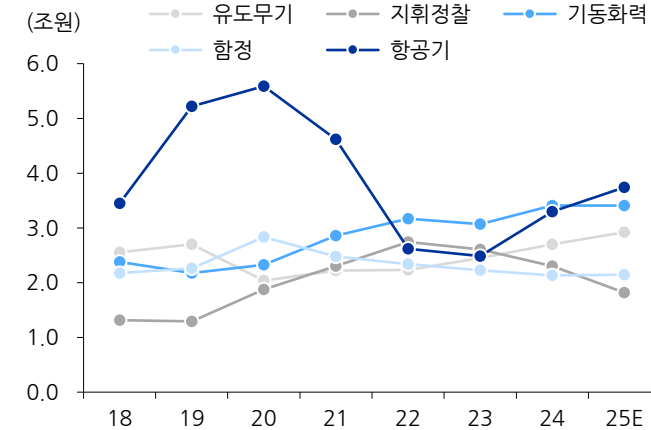


What's new? - 방산 산업 주요 이슈 & 스터디 시리즈(2)

[2025년 국방비 예산안 공개, 누가 수혜인가?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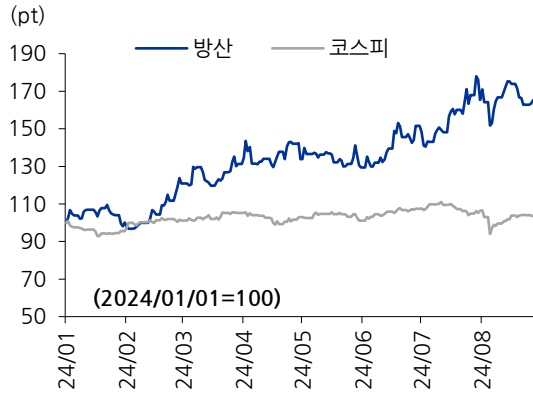
■ 내년 국방비 예산안은 전년대비 3.6% 증가한 61.6조원. 방위력 개선비는 18조 712억원으로 전년대비 2.4% 증가.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29% 수준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. 방위력 개선비 부문별로 보면, 항공기와 유도무기 예산이 전년대비 각각 13.4%와 8.2% 증가. 현재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의 핵심은 3축 체계 확보로, 관련 KF-21 양산 및 미사일방어 역량 확보(L-SAM 등)에 예산이 집중되는 추세. 이에 따라 내수 방산에서는 LIG넥스원 및 한국항공우주가 최대 수혜

Key Chart: 방위력 개선비 주요 항목 예산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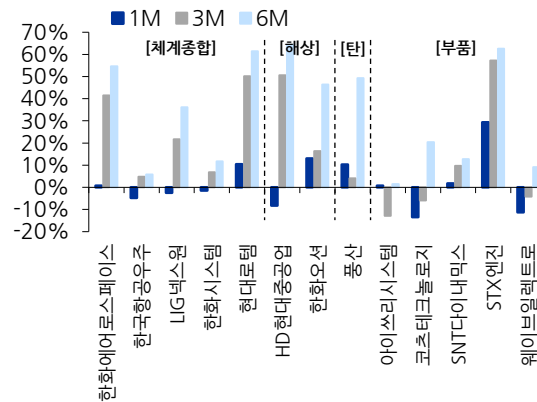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KITA

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



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



자료: Bloomberg

방산 주요 뉴스(08/26~09/01)

[수주/계약]

- 한화오션, 국내 최초 미 해군 MRO 수주 달성
- 폴란드 내년도 국방예산 485억달러로 GDP 대비 4.7%
- 다음달 민간 경제사절단 리투아니아 방문해 방산 등 논의
- 10조 규모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한국과 일본 격돌
- 방위사업전 37개국 70명 해외 국방 귀반 참석 확정
- L-SAM 2 개발 본격화. 국방과학연구소 제안서 공모

[기업별 이슈]

- 한화 7개사 대표 인사 실시. 한화시스템, 한화오션 등 변화
- 한화에어로, 인적분할으로 거래정지 돌입. 27일 재개 예정
- 한화에어로, 태국과 K200 장갑차 성능 개선 MOU
- KAI 방사청 상대 잇단 승소, 공공기관 입찰 계속
- KAI FA-50 호주 피치블랙 훈련에서 그리펜에 완승
- K-2 전차 파워팩 완전 국산화 시동. 군 기준 96% 달성
- 한화시스템, UAM 해외 투자에서 국방용 AAV 개발로 선회

[기타]

- 2025년 국방비 예산 공개. 국방비 60조 시대 개막
- EU 가입 희망하는 세르비아 프랑스 라팔 12대 구매
- 태국 공군 F-16 대신 스웨덴 그리펜 추가 도입 결정
- 미국 F-22 넘을 6세대 전투기(NGAD) 30년대 배치 예정
- 한국 유엔 무기 수출입 통제도 비공개 처리
- 신한은행, 방산공제조합 방산 육성 금융 지원 협력
- FT, 글로벌 Top 15 방산 기업 26년에 FCF 520억 기록 전망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안녕하세요 항공 위클리예요

2024.09.02

Weekly Keyword

"SAF 의무화 추진, 항공사 부담은 제한적"

국토부의 SAF 확산 전략에서 27년부터 SAF 1% 혼유 의무화 추진. 비용 부담 우려 존재하지만, 1% 정도면 큰 부담은 없음. 항공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

유진투자증권

로봇/기계/운송 양승윤

02) 368-6139_syyang0901@eugenef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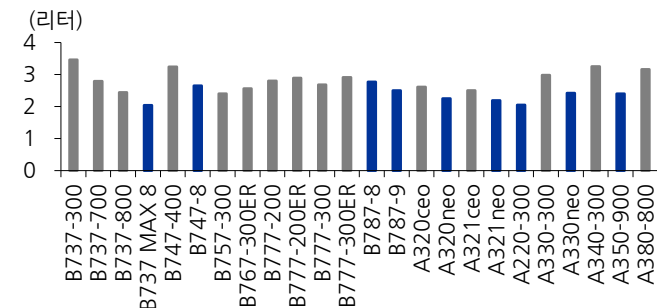


What's new? - 항공 산업 주요 이슈 & 스터디 시리즈(2)

[SAF 의무화 추진, 항공사 부담은 제한적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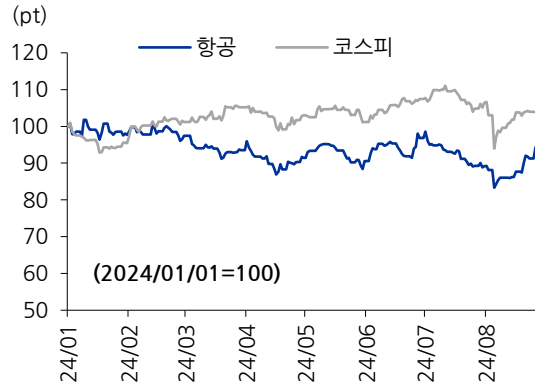
■ 국토부가 SAF 확산 전략을 발표. 24년부터 SAF 급유 상용 운항 개시하고, 27년부터 혼합 의무화 제도(국내 출발 국제선 모든 항공편 1% SAF 혼합) 도입을 검토/추진하는 내용. 현재 SAF 공급 제약 속, SAF 가격이 일반 항공유 대비 3배 비싸 항공사 비용 부담 작용 우려 존재. 하지만, 단순 계산으로 1% 혼유는 2% 비용 상승에 그치고, 최근 항공사들 B737-MAX 등 고효율 항공기로 전환 중(연료 소모 15% 감소)으로 충분히 헷징 가능. 국토부도 비용 영향 최소화 위해 운수권 배점 반영,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,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 강구할 계획. 이미 프랑스 등 유럽 중심으로 SAF 의무화 본격화 되는 가운데, 한국도 글로벌 트렌드에 늦지 않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점 긍정적. 항공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되며, 현 시점은 오히려 환율 하락 등 매크로 요인 영향 관심 필요

Key Chart: 기종별 1좌석(100km 당) 연료 소모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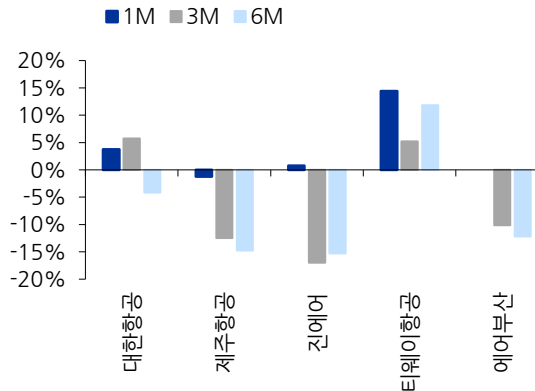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Okinawa Airport

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



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



자료: Quantiverse

항공 주요 뉴스(08/26~09/01)

[여객]

- 티웨이항공 인천-파리 신규 노선 취항
- 티웨이항공 첫 파리 항공편 첫날부터 21시간 이상 지연
-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4대 도입해 미주/동남아 노선 확대
- 이스타항공, 국내 최초 일본 도쿠시마 연내 취항 예정
- 이스타항공, 겨울철 대비 일본 도쿄 및 삿포로 노선 증편
- 에어로케이, 10월부터 청주-필리핀 세부 신규 노선 취항

[화물]

- 미국 동부 항만 파업 가능성으로 해운 운임 불확실성 가중

[기타]

- 국토부 SAF 로드맵 공개. 27년까지 1% 혼유 의무화 추진
- 대한항공, SAF 급유해 첫 상용 운항 개시
- 대한항공-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EC 심사 돌입
- 티웨이항공 객실 승무원 대상 무급 휴직 모집
- 항공사 정비사 지속 감소. 정비사 부족으로 지연/결항 우려
- 에어로케이 항공기 임대료 82억 반환 소송 패소

[Global]

- 중국 3대 항공사 모두 중국산 항공기 C919 도입
- 유럽항공사, 이스라엘-헤즈볼라 확전으로 항공편 취소
- 터키항공, 환승객 위한 무료 숙박 서비스 제공
- 보잉, 중국 항공기 대수 2043년까지 두 배 성장 전망
- 일본 조종사 부족 심각. 30년까지 1천명 필요한 상황
- KLM 네덜란드 항공 수소 전기 항공기 시범 비행
- 말레이항공 연말까지 운항 축소. 한국 노선 일부 중단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